

레이간 동굴

전설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가 생애 마지막 2년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레이간도 동굴은 난보쿠초 시대(1336-1392)에 선(禪)을 일본에 처음 들여온 중국의 승려, 동릉영여(東陵永瑤)가 창건한 선사(禪寺)인 운간젠지 절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50 년 전에 지어진 지금의 본당 옆에는 이끼 낀 돌 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당시 무사시가 마셨던 물을 마셔볼 수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파괴 행위

동굴로 향하는 길을 따라 비탈진 곳에는 앉아 있는 석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목이 없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백나한’이라고 불리며 석가의 제자 500 명을 새긴 석상으로 곤혹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간젠지 절의 오백나한상은 18 세기 초, 구마모토의 상인이었던 후치다야 기헤이가 사가 지방의 석공에게 부탁하여 24 년의 세월을 걸쳐 기진한 것입니다(무사시가 생존해 있을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백나한상은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 ‘외국에서 들여온 불교는 일본 고유의 신도(神道)보다 필연적으로 열등하다’는 당시 정부의 방침 아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사시의 죽음

구마모토에 초대받아 이주한 시점에 이미 50 대 후반이었던 무사시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이곳에서 검술과 인생의 실천적인 지침이 되는 『고린노쇼(五輪書)』를 집필했습니다. ‘겐젠이치노(劍禪一如)’ 즉, 궁극의 검술은 선(禪)의 경지와 같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검술의 수련이 진정한 자아의 발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무사시에게는 선사에 은거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사시는 동굴 안의 큰 바위에 올라앉아 명상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동굴 앞 산 중턱에는 나무가 적어 서쪽에 있는 바다까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